

Congratulatory Remarks

- Opening Ceremony of Ministerial Segment(1th Oct 2012) -

Ms. JANG Myungsook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장명숙입니다.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을 최종 평가하고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전략을 채택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아.태 장애인 10년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유엔 장애인 10년’ 사업이 아.태 지역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 아래, 아.태지역 정부가 공동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면서 1993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태장애인 10년이 내년이면 벌써 제3차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세계로 확대되면서, 한국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에 선 장애인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그 결과 많은 장애인 관련 법들이 제.개정되고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운영이나 정책의 결정 과정에 미흡한 면이 많아, 아직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아.태지역의 다른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이제 막 이러한 변화들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한창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사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또 앞으로 10년을 지금처럼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3차의 10년은 제1차와 제2차 10년으로 다져온 토지 위에서 결실을 맺는 10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결실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아.태지역 장애인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핵심은 “Make The Right Real!”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인권전담 기구로서,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차별 시정기구로서, 정말로 장애인의 권리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발맞추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여러 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먼 길을 해주신 유엔 에스캅의 순이치 무라타(Shun-ichi Murata) 사무차장님을 비롯해 각 회원국 대표 여러분, 여러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장애계를 대표해 참여해주신 장애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1(목)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장명숙

我们的产品



大数据平台

国内宏观经济数据库

国际经济合作数据库

行业分析数据库

条约法规平台

国际条约数据库

国外法规数据库

即时信息平台

新闻媒体即时分析

社交媒体即时分析

云报告平台

国内研究报告

国际研究报告

预览已结束，完整报告链接和二维码如下：

https://www.yunbaogao.cn/report/index/report?reportId=5_7336

